

말로는 《정세완화》, 행동은 전쟁준비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서울에서 남조선에 날아온 미국군사 장관과 미래평양함대사령관을 만나 《한미동맹강화를 바탕으로 한 연합방위태세》와 《대북군사적공조》를 모의하였다.

《북남관계우선론》을 표방하면서 실제행동에서는 공화국을 해칠 침략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남조선군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분야합의서리행》을 운운하며 《신뢰조성》과 《긴장완화》에 대해 련설해왔다.

남조선군부는 이제 또다려하여 다음해에 자행되고 신행망 등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미군기갑부대와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고 떠들었다.

남조선군부는 이제 또다려하여 다음해에 자행되고 신행망 등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미군기갑부대와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고 떠들었다.

남조선인테레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4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폭로하였다.

남조선주둔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주둔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주둔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주장

남조선주둔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주장

실제적인 지배자는

남조선에서 미국의 《주권》 침해행태에 대한 각계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그들의 요구를 강압적으로 내리막이며 하인다루듯 해온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 해마다 벌리는 북침전쟁연습과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특종물질의 살포하여 남조선의 농토가 황폐화되고 동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있는 지역은 또 얼마인지를 모른다.

민생이 악몽에 불과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신형코로나비루스사태로 민심이 흉흉하다.

이제야 남조선에 어지러운것만큼 사람사이에서 접촉을 뚝 끊는 사람이 늘고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장소에서 한사람이라도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가 있다면 그 후과는 이루 상상할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장소에서 한사람이라도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가 있다면 그 후과는 이루 상상할수 없는것이다.

정치시정배들의 역겨운 추태

최근 남조선에서 《총선》을 앞두고 18살 청소년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여야당들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유권자들을 끌어당겨 《총선》에서 《국회》를 장악해보려는 남조선여야정당들의 움직임이다.

정치로 젊은 세대들의 환멸과 실망만을 자아냈다.

정치로 젊은 세대들의 환멸과 실망만을 자아냈다.

세계적으로 확대되고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피해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월 30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발생한것을 전례없는 사태로 평하면서 이 비루스가 세계적범위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자가 2만 8 018명, 사망자는 563명에 달하였다.



조선 침략을 노린 《운양》 호사건

일본은 일찍부터 아시아의 관문인 조선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다.

19세기 중엽 《명치유신》으로 알려진 부르조아개혁을 실시하자마자 대조선침략정책인 《정환론》을 들고나온 일본침략자들은 1875년 9월 《운양》 호사건을 조작하였다.



일본침략선 《운양》호

이노우에를 부대신으로 각각 임명하여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라도 기어오 조선봉건정부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득불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부득불 전쟁을 하는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까지 하였다.